

기리시탄 근절이라는 특명을 받게 된 나가사키 부교

선교사의 국외 추방과 교회 파괴

1614년, 막부의 사자(使者)로 야마구치 스루가노카미 나오토모가 나가사키에 파견되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제4대 나가사키 부교 하세가와 사효에 후지히로와 함께 지금의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의 자리에 있었던 산속 산타 마리아 교회와 옛 현청 부지에 있던 피승천의 성모 교회 등 11곳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선교사와 다카야마 우콘과 같은 유력한 신자들을 나가사키로 불러들여 마카오와 마닐라로 국외 추방했습니다.

기리시탄 근절을 향한 움직임

제5대 나가사키 부교 하세가와 곤로쿠 후지마사는 탄압에 가세하여 1620년, 나가사키에 찬존했던 미제리코르디아(자비조, 慈悲組)의 교회와 병원 등을 파괴했습니다. 1622년에는 영국 함선에 나포되어 히라도로 인항된 히라야마 조친의 고슈인센(막부의 허가를 받은 무역선)에서 일본으로 잠입을 시도하려던 선교사 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55명의 가톨릭 신자가 화형 또는 참형을 당한 젠나 대순교가 발생했습니다.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오무라의 스즈타 감옥과 구르스 마을의 감옥에 수용된 카를로 스피뇰라 신부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이들을 숨겨준 신자들이었으며, 그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626년에는 제6대 나가사키 부교 미즈노 가와치노카미 모리노부가 취임했습니다. 쇼군에게서 기리시탄을 근절하라는 엄명을 받은 미즈노는 탄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에 선교사와 신자들을 밀고한 자에게 은 100개(은 1개=약 43돈의 막대형 은덩어리)를 하사하고, 1628년부터는 신자를 조사하기 위해 성화상 등을 밟게 하는 ‘에부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종을 거부하는 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시마바라 번의 번주인 마쓰쿠라 시게마사가 했던 것처럼 운젠 지고쿠의 열탕으로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1629년에 부임한 제7대 나가사키 부교 다케나카 우네메노카미 시게요시는 기리시탄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케나카는 운젠 지고쿠의 열탕 고문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산 채로 펼펼 끊는 가마에 집어넣는 등 더욱 혹독하고 잔인한 고문을 새롭게 고안했습니다. 이처럼 나가사키 부교의 잔인한 고문들로 인해 대부분이 기리시탄이었던 나가사키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그림 1

운젠 지고쿠에서 고문하는 모습

몬타누스 『일본 견사(遣使) 기행』(1750년판)